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6

늘 푸른 숲

2026. 8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교훈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WAVE
내 영혼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작은 손을 붙잡으며 배운 '믿음의 항해'
인터뷰, 내 인생을 멈추게 하셔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생명의 샘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지훈 담임목사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8월을 맞이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프리카’라 불리는 가장 무더운 대구에서 이 무더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내느라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마실 물 한 잔 쉽게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한 걸음 떼기도 쉽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독충과 위협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광야는 오히려 소망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며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8월의 무더위를 살아내는 삶의 무게가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과 열심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생수로 다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한 달,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안에 가득했던 염려와 피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생수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을 열며

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이유는
‘여름 사역’이라 불리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한
태양과 같이 뜨거운 은혜의 시간 덕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여름은 잠시 멈추어 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어 달려온 ‘리딩 지저스’의 숨 고르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더욱 보충하는 단비와 같은 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태양과 같은 은혜와 단비 같은 말씀을 모두 잘 누리고 계신지요?

여름의 어원은 ‘열음(열매가 열리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여름은 화려한 꽃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탐스러운 결실을 준비하는 역동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곳에 심으신 이유도,
그저 잠시 피어날 꽃을 넘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단비 아래에서 알찬 열매가 맺히듯,
이 계절이 지나면, 우리 삶에 진짜 ‘열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철의 역동을 넘어서서 사계절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신실하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8월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상진 청년(교회보팀)





2026 August | Vol. 446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8월을 열며 _ 이상진 청년
- 05 목차
- 06 BOOK |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_ 김규섭 목사
- 08 어머니 기도회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 _ 장은조 권사
- 09 어머니 기도회 | 감사로 엮여지는 예배의 자리 _ 정미경D 집사
- 10 선교세미나 | 우리 곁에 온 열방 _ 문성주 목사, 정은주B 집사
- 11 선교훈련 |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WAVE _ 장하준 학생
- 12 청년부 | 감사를 멈춘 자리에서 발견한 은혜 _ 김예지 청년
- 14 내 영혼의 찬양 | 내 평생에 가는 길 _ 김병연B 집사
- 16 나의 한 구절 | 박민열 강도사
- 18 여름성경학교 | 작은 손을 붙잡으며 배운 믿음의 항해 _ 박단비 집사
- 19 여름성경학교 | 유치부의 '믿음의 항해'를 마치며 _ 이향자 집사
- 20 여름성경학교 |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_ 김성애 집사
- 21 여름성경학교 |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항해 _ 김효관 집사
- 22 공감의 장 | 영원한 나의 모 교회, 120년의 은혜 _ 신성욱 목사
- 24 인터뷰 | 내 인생을 멈추게 하셔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 _ 드보라 선교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7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6호 | 발행일 2026년 8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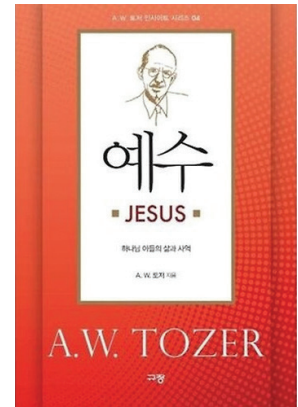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중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올해, 늘 푸른 숲의 기획도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친 A.W.토저가 그의 영적 통찰력으로 써 내려간 책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내밀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길 고대합니다. 이번 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편의 예수님을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기관이나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를 기관이나 건물로 보게 되면, 교회를 평가할 때도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 설교, 시스템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만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간’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p.170)

A.W 토저는 교회란 기관이나 정기적인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말의 핵심은 ‘나눔’과 ‘참여’입니다. 고정된 구조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실제적인 교제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실체임을 말합니다.

교회가 일반적인 친목 모임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성찬을, 예수님이 오래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저 과거를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이제 나 또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인간이 되셔서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절당하시고, 그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찬이 보여주는 복음 안에서 완성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 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그곳이야말로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넘칠 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나눔과 참여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 즉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과 참여의 교회가 될 때,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범어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김규섭 목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범어교회의 어머니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가정과 자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툰고 부족한 기도였지만 우리의 눈물과 탄식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아픈 환우들이 많았습니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과 수술을 앞둔 분들, 갑작스럽게 질병을 만나 고통 속에 계신 가정들과,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눈물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함께 드리는 중보기도는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머니의 기도는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한 학기 동안 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엡 3:20)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은혜와 회복을 함께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 장은조 권사(어머니 기도회 팀장)

감사로 앞드려지는 예배의 자리

나는 범어교회를 다닌 지 8년이 지났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지나는 길에 가끔 ‘어머니 기도회’ 플랜카드를 보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매번 지나쳤었다. 3년 전, 딸이 교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일 즈음에 시험 며칠 전부터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기도회’가 생각났다. 그래서 바로 교회로 달려갔지만, 문은 닫혀있었다. 종강이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다급한 마음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찾다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때 결심했다. 내년부터는 어머니 기도회에 한 주도 빠짐 없이 나가겠다고 말이다. 그 후로 2년간 꾸준히 나와서 예배드린다.



기도회에서 다 같이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다. 기도회에 올 때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이 찬송의 가사 말씀을 붙들었다. 기도 제목은 가족들의 구원 다음으로 아이들의 취업이었다. 먼저 하나님이 큰아들의 정말 어려운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다. 정말 기적이었다. 작년 12월엔 딸의 임용시험 세 번째 도전이었다. 시험을 치르고 1월엔 수업 실연과 면접이 있었다. 그 수업 실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으로 위안의 말씀을 주셨다.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일,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를 드렸다. 너무 감사해서 오열하듯 계속 울었다. 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어머니 기도회’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머니 기도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다.

• 정미경D 집사(성사모)

교회 연합 선교세미나

우리 곁에 온 열방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귀한 ‘교회 연합 선교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전, 대구 대동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 사역은 매우 낯설고 척박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학생을 품고, 한 가정을 섬기며, 한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이 쌓여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회에 30만 명이 넘는 유학생과 수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시며 ‘세계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지역교회 가운데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로 가는 시대’를 넘어 ‘세계가 우리 곁으로 오는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우연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하신 선교적 기회입니다.

25년 전 눈물로 뿌렸던 작은 씨앗이 이제 여러 교회의 관심과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초청은 제게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시 118:23)라는 말씀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문성주 목사(GMS 이주민 선교연합회 공동대표)

디아스포라(Diaspora),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해외로 나가는 선교만 생각했던 나에게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문성주 목사님의 선교 방향은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문화 교회’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감동을 주신 후, 국내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을 향한 디아스포라 선교가 시작되었다. 성경 속, 민족의 이동과 박해를 통해 복음이 확장되었듯, 오늘날 한국도 수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는 선교지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열방을 훈련시키는 선교센터이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이다. 이제 우리는 곁으로 찾아온 선교를 맞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성과 실력을 갖추며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된 자를 쓰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그네들을 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낼 길 소망한다.

• 정은주B 집사(바울 청년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WAVE

저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8월에 인도네시아로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이를 준비하며 필수 과정인 ‘WAVE(We Are Visionary Evangelists) 선교훈련’을 수료했습니다. 선교훈련을 통해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미리 배우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이 훈련이 없었다면 선교를 단순히 교회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훈련을 통해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선교는 그 지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선교를 내가 가진 능력이나 물질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단기선교팀이 방문할 곳은 ‘JUU’라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또래인 많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우 덥고 습한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지치는 날씨 속에서 사소한 일로 힘들어하거나 팀원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감사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네시아를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단기선교팀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 장하준 학생(중등부)

감사를 멈춘 자리에서 발견한 은혜

안녕하세요. 청년 1부를 사랑하는 47대 김예지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대되는 수련회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청년1부 공동체에서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수련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제 마음대로 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모든 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은혜가 정말 필요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에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쁨에,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조장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조원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교회에서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간호사로 입사했습니다. 정말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

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3교대 근무 특성상 매일 생활 패턴이 바뀌고, 매달 다른 스케줄에 맞춰 살아가야 했지만 그 변화마저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6월쯤 되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마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근무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정작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삶의 목적을 회복



하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회 가운데 수련회에서만 강렬하게 경험하는 ‘인스턴트 은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꾸준히 누리는 잔잔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작년 취업 준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으면서도, 막상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자 감사의 조건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더 집중하며 불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에는 이미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만 바라보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리딩지저스’를 창세기에서 멈춰놓은 상태였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해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말씀을 읽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수련회는 늘 그렇듯 청년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기대했던 것보다 집회가 힘들었거나, 생각만큼 큰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지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가장 위대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예지 청년(청년1부)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의 샬롬(shalom)이 마음에 닳을 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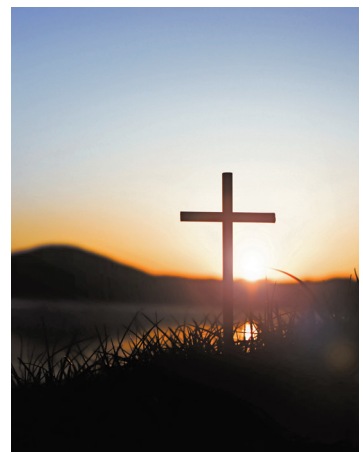
인간은 입만 열면 꼭 하는 것이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변명’ 세 가지이다. 이 글도 분명히 내 자랑과 변명이 될 것이니 죄송한 마음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다. 어물쩍하다 오십이 되었다. 20대에 진보적인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환경교육 연구자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살고 있다.

항의의 질문과 탄식의 기도 :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88:14)

6년 전 여름 어느 날 자정을 넘기는 시간, 나는 여느 날과 같이 책상에서 흠어져 있던 거친 생각들을 지면에 정리해 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때 불쑥 나를 찌르고 넘어지게 한 가시가 돋았다. 나는 그날 그 ‘시간의 감촉’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후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신음하며 인생의 쇠락을 경험하였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었던 걷기, 식사하기, 책 읽기, 글쓰기, 심지어 눕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겨웠고 강의하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움이 되어 버렸다. 그 사이 사명감으로 포장했던 수많은 경제적 활동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전력을 다해 파멸시키는 것과 같았다. 내 인생의 찬양에 거하셔야 할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탄식을 날게 하시고 ‘응답 없음’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만 하였다. 하지만 주님과 나만 아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항의와 나의 탄식은 더욱 강렬해져만 갔다.

헤세드(Hesed)의 하나님 :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26)

어느 날, 여전히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집 근처 돌레길 걷기를 간신히 마치고 힘겹게 걸어 내려오는 길에 허공에 흠여지고 있는 석양의 숨결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신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바위 위에 주저앉아 주의 이름을 불렀다.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으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닳을 내린 순간이었다.



마치 이성복 시인이 ‘그 여름의 끝’에서 노래한 것처럼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이 고백 이후 나의 몸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대부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살로를 경험한 이후 내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 ‘내 평생 가는 길’은 내 영혼 깊이 각인되어 있고 지금까지 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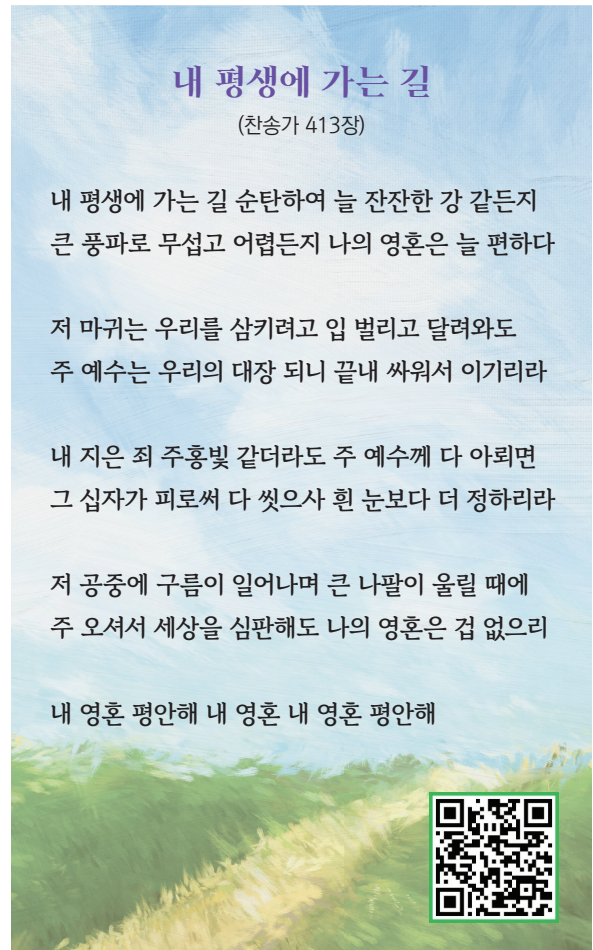
중세 및 근현대 철학자들이 경험한 삶의 명제 ‘솔비투르 암블란도’(solvitur ambulando), 즉 ‘걸으면 해결된다’를 삶에 적용하여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반드시 걷는다. 걷기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함량 미달 제자, 아들’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래도 모자람으로 스스로를 고백하니, 하나님이 조금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통해 ‘죽음과 죽은 자’가 아니라 ‘삶과 산 자/살아남은 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 길목에서 나는 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노래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 김병연B 집사(바울청년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후반절)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내적인 전환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또 말씀하신다.

「믿음이 이긴다 / 존 화이트」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현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눈앞의 문제로 향하게 하지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박민열 강도사

작은 손을 붙잡으며 배운 믿음의 항해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처음 프로그램을 맡았을 때의 서툴렀던 기억이 떠올라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준비할수록 저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역할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자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과 시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이들보다 먼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삶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제 생각과 방법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친 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교사인 저였습니다. 교사는 많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삶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작은 손 하나까지 사랑으로 붙드는 영아부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막 4:39)

• 박단비 집사(영아부 교사)

유치부의 ‘믿음의 항해’를 마치며

먼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코너에서는 풍선 배를 타고 항해하며 잔잔한 물결을 만났을 때와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풍선 배를 타고 항해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될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멋진 믿음의 항해사로 쑥쑥 성장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항해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주교위원회, 목사님, 전도사님, 유치부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등부, 고등부, 청년2부에서 성경학교를 위해 봉사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삶의 바다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항해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 이항자 집사(유치부 교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유년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레크레이션을 지나서 열정 가득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되새기는 공과 시간과 즐거운 코너 학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와 ‘부모 교육’ 등으로 알차게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하나의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년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전도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유년부 교사분들이 긴 시간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에 등록했고, 새 친구의 손을 잡고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풍랑을 잠잠케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예요!”

유년부 아이들의 이 고백을 들으며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졌음’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자라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유년부 아이들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성애 집사(유년부 교사)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항해

올해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는 청도의 푸르름이 가득한 곳에서 ‘믿음의 항해’를 떠났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든 제 생각은 솔직히 ‘은혜’보다 ‘일’에 더 가까웠습니다.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예산을 짜고, 식사와 차량을 확인하며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만 분주했습니다. ‘솔직히 회사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교만한 마음도 있었음을 먼저 고백 드립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너무 적게 오면 어찌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계속 늘어나자, 이번에는 ‘식사가 부족하면 어찌하나, 예산이 모자라면 어찌하나’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아보니 걱정의 내용만 달라졌을 뿐, 믿음 없는 부장 집사의 마음은 처음이나 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학교를 마치며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능력도, 일머리도, 인간의 지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도사님과 목양 교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에 어쩔 줄 몰랐던 그 은혜를 꼭 경험하게 해 주세요.” 긴 시간, 합심한 우리의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성경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눈에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이들뿐 아니라 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범어교회 소년부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효관 집사(소년부 부장)



영원한 나의 모 교회, 120년의 은혜

내게는 설교하기 무척 부담스러운 교회가 하나 있다.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에 부담을 갖지 않지만, 유독 이 교회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꽤 부담이 된다. 바로 내 신앙의 뿌리이자 모 교회인 대구 범어교회다. 범어교회에서 설교할 때면 나는 늘 긴장하게 된다.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계셨기 때문이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는 항상 종이쪽지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서 고쳐야 할 주의 사항을 말씀하셨다. 여태껏 아버지로부터 “설교 좋았다”라는 칭찬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언제나 “야야, 이런 표현은 국어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음엔 고치거라!”라고 하셨다. 당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대꾸도 하고 변명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다 맞는 말씀이었다.

**120주년 기념
범어출신 교역자
초청 설교**

고영기 목사 4.17(금)

- 총학교 2학년 ~ 27세
- 학년 2대
- 원로부 고교 총무, 원로으로 섬김
- 모친 조신애 전도사(범어교회에서 사역)
- 현) 의정부안교회 담임

이진영 목사 5.22(금)

- 2012년 12월 30일 부임(교육전도사) / 2017년 12월 24일 사임(역사)
- 총동무 / 소년부 / 교구 / 베드로 청년부 / 연세대학교 / 호신나 전방전도
- 현) 사해내곡교회 담임

신성욱 교수 6.26(금)

- 고등학교 3학년 ~ 26세
- 학년 7대
- 총동무 교사 / 2부 성경대 68명
- 부친 고 신규수 동생 장남 / 모친 고 박영애 교사
-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학 실전신학 교수



한 번은 설교 속에 “~던 것입니다”란 표현을 “~입니다”로 바꾸고, “공동운명체”를 “운명공동체”로 수정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아무런 칭찬도 없이 단점만 지적하시는 아버지가 좀 야속하기도 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었다. 그 후로 후배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 역시 “~던 것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수정하라는 조언을 해주곤 한다.

최근 범어교회 금요예배에서 오랜만에 설교를 했다. 강단에 서니 늘 설교를 점검하시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수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하셨기 때문이다. 훌га분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엄격하시면서도 다정했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섭섭함 또한 컸다.

내가 아내와 대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범어교회는 대구의 중급 규모의 교회였다. 이후 장영일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 십수 년 동안 모교회는 대구의 '빅3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다. 장 목사님 은퇴 후에는 신실하게 준비된 이지훈 목사님이 부임해서 안정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 교체'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데, 범어교회는 그런 점에서 참 복된 교회라 생각한다.

어느덧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범어교회가 설립 기념으로, 그동안 배출한 목회자들을 매달 금요예배 강단으로 초청하고 있다. 늘 모교회에서 은혜받던 추억이 남아 있었는데, 모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범어교회 출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초청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감사할 따름이다.



한 달 전, 내가 설교한다는 소식을 들은 범어교회 대학부 후배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잘 기억나지 않던 후배의 모습이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대구역에 도착하니 후배 세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하며 한 시간 반 동안 옛 추억을 더듬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또렷이 기억나 너무도 반가웠다. 그중 한 명은 대학부 시절, 구미 금오산 정상에 등반을 가서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옛 추억을 30년 만에 떠올리게 했다. 그때는 모두 처녀, 총각이었는데, 어느새 60이 넘는 나이가 되고 말았다.

그날 범어교회에서 담임목사님과 나누었던 깊은 교제 또한 귀한 시간이었다. 교인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는 모습이 참 좋았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던 부모님 또래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본향으로 떠나셨지만, 새로운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셨다.

타향에서 살다 보니 고향과 모교회 생각, 친구들과 지인들을 떠올릴 때가 많다. 만남과 추억, 대화와 교제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한 특권임을 절감한다. 더욱이 천국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복된 부대감은 더없이 기쁜 행복이어서 감사하다. 12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범어교회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 신성욱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

내 인생을 멈추게 하셔서 다시 부르신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실제 선교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안정적인 간호사 생활을 내려놓게 한 투병과 긴 회복의 시간, 선교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이집트 드보라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멈추게 하신 이유와 다시 부르신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먼저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과 신앙생활을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전체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여덟 살 때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아 계속 다녔어요.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무척 심했습니다. 성경책을 버리시거나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회 반주를 맡게 되니까 주일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도 더는 방해하지 않으시더군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믿음을 지켜 주신 은혜였습니다.



Q.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와 경배와 찬양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을 부르는 시간에 앞으로 나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성령의 강한 은혜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의료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열다섯 살 어린아이의 작은 고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Q.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A.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병원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으면서 그 생활이 무척 좋았어요. 선교지에 직접 나가기보다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교의 부르심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과

행위로 굳어졌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와 세상에 양발을 걸친 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Q. 그러다 삶의 큰 전환점을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면요?

A. 네. 2014년 서른다섯 살 때 우연히 받은 검사에서 6.7cm 크기의 담낭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큰 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는 하지 않았지만 회복하는 데 약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멈추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게 되고선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이 멈추고 나서야 말씀이 새롭게 읽혔고, 제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다시 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래전에 드렸던 선교 헌신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저는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다섯 살 때 드린 작은 고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병으로 삶이 멈춘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Q. 부르심을 회복한 뒤에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나요?

A.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네덜란드에서 2년 동안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 마흔 살이었는데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언어도 느리고 공동체 생활도 익숙하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훈련을 마쳤기에 바로 선교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더 기다려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Q.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A. 하나님께서는 제가 선교사가 되기보다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잡으셨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3~4년 동안 예배와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Q. 많은 나라 가운데 중동을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주님은 지금 어느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머무는 곳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중동의 무슬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마흔다섯 살의 싱글 여성으로서 두려움도 많았고 아랍어는 매우 어려운 언어였어요. 그러나 기도할수록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커졌습니다. 결국 “제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후 인터서브와 연결됐고 난민 사역에 관한 관심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집트가 최종 사역지로 결정됐습니다.

Q. 카이로에서 보낸 첫해는 어떠했나요?

A. 2025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뒤 첫해에는 아랍어 공부와 현지 적응에 집중했습니다. 언어학원과 개인 교사를 통해 읽기와 쓰기, 말하기를 익히고 이슬람 사회의 문화를 배우며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루 다섯 차례 울리는 아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슬림들을 판단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을 덮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Q. 최근에는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나요?

A. 현재 난민학교들과 접촉하며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집트에는 수단과 시리아, 예멘 등 전쟁과 분쟁을 피해 온 난민과 이주민이 많이 살아갑니다. 간호사 경험을 살려 난민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위생, 질병 예방, 건강관리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여성 건강교육과 성교육, 상담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과 다음 세대가 영육 간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1. 드보라 선교사가 매일 성령 충만한 예배자와 중보자로 굳건히 서도록
2. 아랍어를 잘 익혀 현지인들과 깊이 소통하고 신뢰의 관계를 맺도록
3.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난민학교와 좋은 현지 동역자를 만나도록
4. 간호사 경험을 살린 보건·의료 교육과 여성 청소년 돌봄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5. 부모님과 남동생의 가정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6.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중동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Q. 최근 경험한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여러 후원 교회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 큰 기도 응답입니다. 특히 범어교회가 저를 협력 선교사로 받아 주신 일은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교회의 결정 과정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어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열다섯 살 때 드린 작은 고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셨으니 이제 저도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 정리 교회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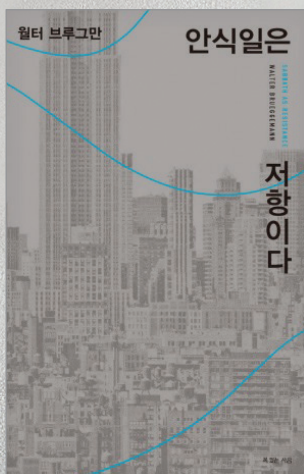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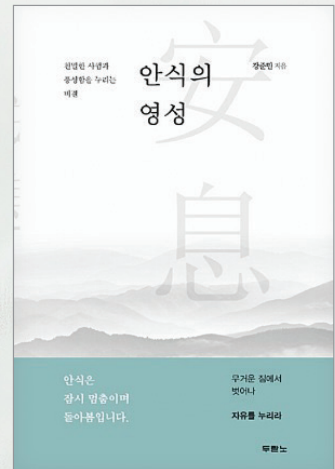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안식의 영성 (두란노, 강준민, 2018)

우리는 바쁨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초대에는 ‘쉼’이 있다. 쉼이란 멈춤이다. 멈추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멈추지 않으면 본질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 진정한 쉼은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즐기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진짜 안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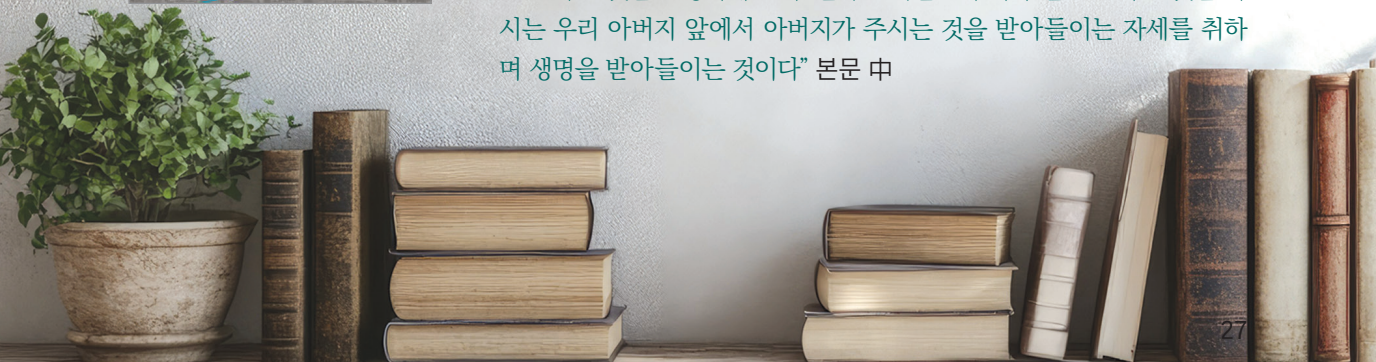
“우리는 매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안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부둥켜안고 씨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분, 가장 부요하신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분을 얻게 됩니다” 본문 中



안식일은 저항이다 (복있는사람, 월터 브루그만, 2015)

만족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우리는 녹초가 될 만큼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쪽에 존재하는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폭넓게 공유하는 탐욕 행위를 그치는 것이다. 안식일은 각박하고 서두르는 일상의 경제활동을 통해 더 많은 상품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들이 결국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 안식일은 우리의 탐심과 불안을 물리치는 해독제다. 안식일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결국 안식일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며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본문 中



7월의 범어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지하1층 영아부실(영아부, 유치부, 유년부)과 2층 초등부실(초등부),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소년부)에서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영아부 : 4일(토), 5일(주일) / 유치부 : 11일(토), 12일(주일), 19일(주일) / 유년부 : 18일(토), 19일(주일)

초등부 : 25일(토), 26일(주일) / 소년부 : 24일(금)~26일(주일)



세계선교위원회는 4일(토), 11일(토), 18일(토), 25일(토)에 여름 중고등부 단기선교를 위한 <청소년 WAVE 선교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5일(주일)부터 26일(주일)까지 1층 식당 맞은편 주교의 뜰에서 120주년 기념 주일학교 문화행사로 진행된 <범어 가족신문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8일(수)~11일(토) 경주 컨벤션리조트에서 “먼저, First”란 주제로 청년1부 여름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2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모범교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8일(토)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란 주제로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19일(주일) 오후 예배시간에 센더스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4일(금) 120주년 기념 초청 설교자로 유병희 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120년을 묵상하는 금요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토) 오전 9시 30분~12시까지 지하1층 갈릴리채플에서 리딩지저스 휴식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세미나>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26일 주일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담임목사가 설교자로 1~3부 예배를 섬겼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어! ‘전도폭발팀’은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이다(C.S.루이스).”

주일 설교 중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머무르라. 그리고 하나님을 충분히 기대하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금요기도회 설교 중

“성도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 설교 중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뿐입니다.”

주일 설교 중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절망이 절망이 아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구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기대가 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모임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구태온, 구윤설 (우한나)



민도준 (민재웅, 김민지)



황도하 (황성은, 도으르)

■ 출산

- 이흥주 성도 (김현철 성도) 득남 : 6월 30일(화)
- 장은희 집사 (황주원 집사) 득남 : 7월 20일(월)

■ 결혼

- 김태우군과 이나영양 : 7월 4일(토) M스타하우스 웨딩&컨벤션 블루스타홀



8월 교회 행사 안내

- 9일(주일): 국내전도위원회 주관예배(오후)
강사 박호기 목사(50사단 진격교회)
- 23일(주일) : 정기당회(오후)
- 28일(금) : 120주년 초청설교 박윤만 목사
(하늘깊은샘교회 담임)
- 30일(주일) : 세계선교위원회 주관예배(오후)
강사 마성민 목사(한국 WEC 지부장)

8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3일(월)~8일(토) : 중등부 단기선교(인도네시아)
- 3일(월) : 고등부 제자반 비전트립
- 3일(월)~16일(주일) : 영어예배부 여름캠프 GOGO9
- 22일(토) : 고등부 개강 전 부흥회
- 22일(토) : 수성노회 성경암송대회 및 율동경연대회
- 23일(주일) : 초등부 새친구 초청주일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박용수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몽골과 아름다운 동행

2026년 7월 26일(주일) ~ 31일(금)

1. 단기선교의 모든 과정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3.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되어 그 사랑을 몽골 땅에 흘려보내게 하소서
4. 우리의 만남이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교회 그리고 MK학교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연합 사역이 되게 하소서
5. 우리의 섬김을 통해 몽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캄보디아 웰컴과 아름다운 동행

2026년 8월 3일(월) ~ 8일(토)

1. 선교지에서 요청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단기선교팀 모두에게 주님의 심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2. 많은 사역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3. 강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고등학생까지 연령이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되어 사랑이 넘치는 팀이 되길
4. 팀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며 주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5. 하용병·김은주 선교사님과 센터에서 협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지인 리더들에게 우리 단기선교팀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인도네시아와 아름다운 동행

2026년 8월 3일(월) ~ 8일(토)

1.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평생에 기념되고 기억되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소서
2.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빛의 무리들이 되게 하소서
3.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열방을 가슴에 품는 어린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4.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일본과 아름다운 동행

2026년 11월 18일(수) ~ 21일(토)

1. 주님의 마음으로 일본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2.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3. 선교 기간 동안 팀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4.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5. 김종탁·강정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일로일로(Iloilo)와 아름다운 동행

2026년 9월 23일(수) ~ 27일(주일)

1. 필리핀 일로일로로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의 많은 영혼이 치유되게 저희를 사용하소서
2. 사역을 준비하시는 최명열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이후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3. 갈 때까지 준비에 소홀이 없게 해 주시고, 가는 과정에 사단의 방해가 없게 하소서
4. 사역 기간 동안 팀원들이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과 따뜻한 교류가 있게 하소서
5. 선교지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에게 많은 은혜와 영적 변화가 있게 인도하소서